

지 회 진 화 번 호

서울 (02) 743-1937 부산 (051) 506-3599
 경기 (0333)666-6091 강원 (0361)481-3876
 충북 (0441) 43-1904 충남 (042) 271-7818
 전북 (0671)625-2302 전남 (062) 367-1161
 경북 (053) 422-7867 경남 (0551) 42-6573
 제주 (064) 22-6907 인천 (032)762-7797

양봉협회보

197호
 1997년 1월 25일
 월간 <비매품>

발행인:정해운/ 편집인:김충겸/ 인쇄인:양광호/ 발행처:(사)한국양봉협회 110-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73 삼보빌딩 301호 전화(02)763-1372·5903·FAX:764-1297

국내반입 북한산로알제리 원산지증명 허위드러나

「코네스 무역」 中·러 농산물등 400억원어치 북한산 위장 적발 11종 품목 중 로알제리 27톤(1백13억원)도

○... 북한산 로알제리가 작년 한해에 무려 18톤, 금액...
 ○...으로 1백96만달러어치나 반입됐다고 본보는 지난해...
 ○...9월호에서 다룬바 있다. 특히 로알제리 경우는 다...
 ○...큰 품목에 비해 적은 물량일지라도 금액 면에선 한...
 ○...약재, 감자에 이어 세번째 자리를 점하고 있고, 반...
 ○...입수법 역시 원산지증명이 허위일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우리의 주장이 드디어 지...
 ○...난 1월6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주요 일간신문들은 『서울세관은 1월5일 북한물품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북한 무역대표부의 「원산지 증명」을 받아 11종의 농산물·한약재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등)로 「코네스무역」의 대표 정근철(鄭根哲·43)씨등 5명을 구속하고 녹두 2백41톤과 녹용 5백27kg을 압수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세관은 또 북한 무역대표부 대표들에게 의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김미화(金美花·30)씨등 8명을 입건하고 밀수입한 농산물을 보관·운송한 이호천(45)씨등 4명을 수배했다.

세관측은 정씨등이 94년 대북교역 활성화 조치로 북한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자 베이징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대표 겸 조선대성제팔무역회사 사장인 장수일과 중국산 농산물등을 북한을 경유해 국내에 반입키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등은 94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중국산 녹두 5백톤등 2천8백32만달러어치의 가짜 북한물품을 밀수했는데 주요 밀수품목은 중국산 참깨 4백64톤(25억원), 들깨 1백2톤(2억8천만원), 로알제리 27톤(1백13억원), 호두 6백4톤(15억원) 등이며 잣·결명자·구기자·오미자등도 포함돼 있다. 또 녹용 7천8백kg등과 러시아산 사향 2백30kg등 모두 4백억 원어치의 농산물과 한약재를 북한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1백5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한약재를 북한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집결시킨 물품을 북한의 신의주→평양→남포항을 거쳐 인천항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밀수 총책인 「코네스무역」의 대표 정근철씨는 중국베이징에 거주하는 북한 무역대표부 장수일을 끌어들여 북한의 공식 기

구인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까지 첨부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 경유 과정에서 북한의 대외무역총회사 「조명선 사장」 명의로 개설된 동남아시아 6개국 은행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으며 이중 싱가포르 송금계좌는 장수일의 부인명의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인천 보세장치장 두곳의 간부들과 짜고 초과 반입한 농산물을 세관 검사전에 무단 반출하고 뉴질랜드에서 정식 수입한 한약재등은 신고가격을 낮춰 1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국내의 밀수조직과 베이징 주재 무역대표부 대표가 짜고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북한의 원산지 증명서까지 첨부되는 등 북한당국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이 가짜 북한산 한약재가 서울 경동시장등에 나뉘는 첩보를 입수한 것은 94년 초. 그로부터 15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값싼 중국산에 북한의 원산지 증명을 붙여 밀수입한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수사요원들이 다시 1년에 걸쳐 용의자 주변을 잠복·미행해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포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녹두에는 8백18%, 참깨에는 600%의 특별 긴급관세가 붙는데 비해 북한산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북한산의 경우 원산지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까지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농산물이 신의주에서 남포까지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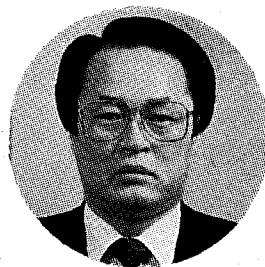
됐으며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북한에서 발행된 계약서와 선하증권·송품장·송금지시서까지 갖춘 것으로 미뤄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밀수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관측은 북한산으로 반입된 농산물·한약재의 60~70%가 중국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물의 경우도 상당부분 러시아산일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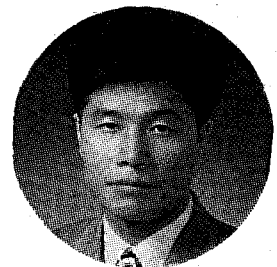
통일원에 따르면 89년 남북 교역이 시작된 이래 지난해 6월까지 교역 액수는 11억2백만달러이며 이중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액수는 9억5천5백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자

꽃샘종합식품(주) 이상갑·골든농산 여인명



◇이상갑대표



◇여인명

지난 12월2일 서울지회 '96 정기총회에서 제3회 아시아양봉대회(베트남)에 한국전시관을 개설, 참여하여 한국 양봉의 위상을 세계무대에 선양하는데 공이 큰 두 업체의 대표, 이상갑


(꽃샘종합식품) 회원과 여인명(골든농산) 회원에게 농림부장관 표창장이 전수되었다. (전시활동의 상세한 내용은 '96 10월호 참조)

강력하고 편리한 응애전문구제제 바이바를

「바이바를」은 간편한 처리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약효로 모든 응애류를 완벽하게 구제해 줍니다.



1. 「바이바를」은 강력하고 빠르게 응애를 구제합니다.
2. 「바이바를」은 효능이 오래 지속됩니다. 투여후 6주까지도 효능이 지속합니다.
3. 「바이바를」 안전성이 우수하여 꿀벌과 사람에게 안전합니다.

Bayer 
 바이엘코리아(주)



독일 바이엘에서 개발되고 구미 각국에서 애용되는 「바이바를」 스트립이 응애 구제에 새로운 힘을 드립니다.

바이바를

수입원제품
 제조원: 독일 바이엘사(Bayer AG)
 포 장: 20 스트립/갑
 구입문의: 일진실업
 ☎(02)923-3470, 927-3983